



| | |
|--------------|---|
| 제목 | Masterpieces from the Department of Islamic Art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 발행언어 | 영어 |
| 발행처 | Metropolitan Museum of Art |
| 발행일 | 2011. 11. 29. |
| 저자 | Sheila Canby, Maryam D Ekhtiar |
| 출판도시 | New York |
| 페이지수 | 448 |
| ISBN 또는 ISSN | 978-0300175851 |

내용 요약

이 책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이슬람 미술 소장품 300여점을 수록한 도록이다. 이슬람 미술 소장품은 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의 다양성과 광대한 범위를 반영하고 있다. 1891년 메트로폴리탄은 에드워드C. 무어의 유증(遺贈)으로 중요한 이슬람 미술 작품을 처음 소장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이슬람 미술 소장품은 기증, 유증 및 매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후원했던 이란 니샤푸르 발굴사업(1935~1939년, 1947년)에서 출토된 중요한 유물들이 추가되었다. 이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아랍 여러 나라, 터키, 이란,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후기 소장품들을 위한 갤러리를 신설하여 이슬람 미술에 관해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상설전시를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예술작품의 지역적 맥락을 강조함으로써 이슬람교는 미술을 통해 단일하고 획일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수 세기에 걸친 변화와 문화적 영향을 통해 광대한 지역을 연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우수한 예술작품으로는 고대 이슬람 전역의 도기 및 직물,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유리 및 금속 세공품, 페르시아와 인도 무굴 제국 궁정의 세밀화, 16세기와 17세기의 전통 양탄자 등이 있다.